

제 10회 『애덤 스미스 입문』_에이먼 버틀러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19년 2월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 도덕 규칙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내부 판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지 않게 결심하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행동할 때, 우리는 그들을 모방하려고 결심한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동들에 관해 그러한 판단들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행위 규칙들을 공식화한다. -중략- 우리는 이제 우리를 안내할 도덕적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중략-

이 항상성(constancy)은 사회 질서에 이롭다. 우리의 양심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결국, 확실히 그러나 의도하지 않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게 된다. 인간 법률들도, 자체의 처벌과 보상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목표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양심만큼 그리고 자연에 의해 잘 처리되는 도덕의 규칙들만큼 일관성 있거나, 즉각적이거나, 효과적일 수 없다. -중략- 만약 자연의 근본적인 원칙들이 계속해서 준수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계속해서 생존할 수 없다.

항상성은 의식하지 않고 처리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며,
뇌에서는 즉각적인 행동 경로를 만들어 낸다.

• 부에 대한 태도

돈이 살 수 있는 의식주의 편의는 실제로 아주 사소하다고 그는 강력히 주장한다. 아름다운 외투는 거친 외투보다 더 비바람에 견디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그 밖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초라한 집에 사는 노동자는 대궁전의 군주보다 더 축 잠잔다. 부는 우리를 두려움, 슬픔 혹은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

누구도, 부자라고 한 번에 여러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고
세끼 이상의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법이다.

• 자기 개선

그렇지만 부의 추구는 다른 편익들을 정말 가져온다. -중략- 이런 식으로, 부의 즐거움들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 비록 사실상 환상일지라도 - 우리를 우리의 물질적 세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도록 몰아가고 우리를 또한 우리의 지적 및 예술적 생활에서도 막대한 개선으로 이끈다.

인류의 산업을 일으키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 두는 것은 이 기만(deception)이다.

처음 그들을 부추겨 땅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도시와 국가를 세우고, 모든 과학자들과 예술들을 고안하고 개선하게 한 것은, 인간 생활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지구의 전 얼굴을 완전히 바꾸었고, 자연의 원시림을 마음에 들고 기름진 평야로 만들었으며, 길 없고 불모인 대양을 새로운 생계 기금으로 그리고 지구의 상이한 국가들로의 통신의 큰 간선 도로로 만들었던 것은 이것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거의 더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 -중략- 참으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만약 지구가 그 거주자들 사이에 균등한 구획들로 나누어졌더라면 이루어졌을 것과 거의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된다.

• 덕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에, 그리고 오직 그 다음에만 친구들과 더 먼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 자신의 나라를 더 고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선은 경계를 모른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인류가 어떤 개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우주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기꺼이 할 것이다.

• 유덕한 사회의 헌법

인류에 대한 애정은 우리의 국가에 대한 애정과 같지 않다. 후자는 우리의 동포가 행복해야 한다는 욕망뿐만 아니라 나라의 헌법과 조직의 존중과 존경도 포함한다. 보통 그 두 가지는 일치한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의 시대에는, 그것들은 충돌할 수 있다.

체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만에 매우 정통한 경향이 있고, 종종 자기 자신의 이상적인 통치 계획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아주 반해서 그는 그것의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가장 작은 일탈도 참을 수 없다. ... 그는 손이 장기판 위에 상이한 말들을 배열하는 것만큼 아주 쉽게 자기가 위대한 사회의 상이한 구성원들을 배열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위대한 장기판에서 모든 단일의 말이, 입법부가 그것에 일으키기 위해 선택할지 모르는 것과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의 운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와 본성은 광신자들과 몽상가들의 거들먹거리는 이성보다 조화롭고 기능하는 사회의 창조에 대한 더 확실한 안내자다.

자유와 본성은 선험적인 것이나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